

영암 무화과 우수특구지정

199개 산업특구 가운데 12위 안에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기관표창 및 포상금 5천만원



영암군의 향토자원인 무화과가 특화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정부로부터 2019년 우수특구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난 5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우수지역특구 시상 및 성과교류회에서 전국 199개의 산업특구 가운데 영암무화과산

업특구가 12개의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되어 중소기업부 기관 표창 및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군이 2015년 국내 무화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무화과산업특구를 지정한 이후

고급화, 표준화, 브랜드 파워 강화를 통해 「우수특구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면서 이루어졌다.

군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특례,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주세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5가지 규제특례 신청을 통해 무화과축적, 무화과 가공품 개발 및 생산, 4개의 분야 18개의 세부사업을 원활히 완료·진행하였다.

매년 이뤄지는 지역특구 운영성과보고는 고용 인원실적, 기업 유치실적, 기업 매출액 실적, 규제특례 활용실적, 우수사례 등을 기준으로 1, 2차 평가, 3차 발표평가(프레젠테이션)로 엄격하게 이뤄지며 그 중 12개의 상위 지역특구만 우수특구로 지정된다.

이날 시상식에서 손점식 영암부군수는 “무화과는 영암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점하고 있다”며,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대표브랜드로 키워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평가 후속조치 마련한다



완도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평가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평가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후 '2020년 산림청 타당성조사 용역' 대응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군 의원과 대학교수, 연구기관, 관련 기관단체장, 용역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완도군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조연환 한국산림아카데미 명예 이사장, 박재순 광주전남발전협의회 회장, 곽행구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 박진옥 완도군산림조합장이 전남남도지사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 배준규 국립수목원 실장과 조연환 한국산림아카데미 명예 이사장, 박재순 광주전남발전협의회 회장은 “완도수목원 도유지와 도내 불요불급 국유지 교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한국수목원관리원 산하가 아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기완 전남대 교수와 배현미 목포대 교수는 “국제적으로 유일무이한 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특성화, 차별화 전략 마련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 설문조사 등 범국민적 참여 유도를 통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한 만큼 난대수목원을 조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완도군이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 14일, '난대림,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완도수산고등학교에서 난대림 전문기와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대림 활용방안과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함평군, 국고보조사업·지방보조금 업무편람 발간

잘못된 보조사업 업무처리 관행 파타 의지 보여

보조금 본연의 목적인 효율성 달성키 위해 노력할 것

함평군은 지난 5일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보조금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재정 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의지를 천명했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6일 군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할 사회의 악(惡)”이라며 “장기화 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세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보조사업 업무처리에 대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발표에 따르면 올해 1~7월 상반기 국

고 등 재정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총 12만 869건으로 국고보조사업이 601억 원(12만 건), 지방보조사업이 46억 원(1,358건)이다.

유형별로는 경과실 등 과오지급이 485억 원(11만 7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거짓 등으로 인한 의도적 부정 수급도 162억 원(3745건)에 달했다.

이에 현 정부에서도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하나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선정, 각 부처 및 지자체별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면서 군은 이번엔 보조금 예산 편성에서부터 교부,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보조금 관련 업무편람(총 2권)을 제작했다.

특히 이번 편람에는 각종 보조사업 추진절차 등 관련 규정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 감사 주요 지적 사례 등이 포함된 보조금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나 권한대행은 “본 업무편람은 보조사업 수행의 기초자료이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는 보조금 제도 본연의 목적을 빈틈없이 수행해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 등을 허위·과다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 환수와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금이 부과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농어촌공사 장흥지사, 가학마을서 브라이트 서비스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지난 4일 장흥읍 소재 안경점과 함께 대덕읍 가학마을 지역민에게 브라이트 서비스(맞춤 돋보기

증정)를 실시하였다. 안경점과 함께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브라이트 서비스는 매년 공사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직

접 찾아뵙어 무료로 돋보기를 맞추어 드리며 눈 건강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한 어르신도 사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마을 전 주민의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 장흥지사는 브라이트 서비스 외에도 농어촌 일손돕기, 집고쳐주기 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에 앞장서며 지역에 봉사하고 있다.

신안군 2020년도 본예산 5천억원 돌파

창군 이래 최대 규모...농수산 수익 증대 목적 예산

신안군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1,047억원이 늘어난 5,679억원으로 편성하여 신안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1969년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가 5천억원을 돌파했다.

주요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이 380억원, 주요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98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2,169억원, 기타 내부거래 등 151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야별 주요 세출 구조를 살펴보면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양식의 다변화 등을 위한 농림해양분야에 1,590억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보호, 어르신 및 청

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에 969억원을 편성하여 농수산업 소득 증대와 따뜻한 군정실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02억원, 도시운영 지원 등 산업 및 교통 분야에 505억원, 1층 1뮤지엄 조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1억원을 반영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부서별 집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 위기 가능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